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73

노무의 선지자 예레미아

(예레미아 서)



여러분, 오늘은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볼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스무 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해 두었다.
세상 여러 나라에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 말이다.”

“예...?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말주변도 없는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변명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셨죠.

그 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아'였는데
요시아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생을 노력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 세상을 떠나자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아 왕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신 좀 차리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도
무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란 말이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돌아다니며
열심히 경고해 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유, 저 잔소리꾼! 자기가 뭘데 우리보고
똑바로 살아라 말아라야?”

“그래,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녀석아!
또 그러면 혼썰을 내 줄 테니! 튜!”

이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따돌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는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 하나를 골라서 땅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죠.

**“자, 다들 보셨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아무리 이어 붙인들
새것처럼 완전해질 순 없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저렇게 산산조각 내실 거란 말이요!”**

또 한 번은, 예레미야가 멍에를 쓴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소나 말이 수레를 끌 때 쓰는 ‘멍에’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들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른 나라 적들의 멍에를 쓰게 될 것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었을까요?
천만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난했어요.**

**또 어떤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예레미야 목에 씌워진 멍에를 꺾어버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올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나라 적들 따위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꺾어 주시겠다 하셨소!
바로 이 멍에처럼 말이지요. 오홍홍홍.”**

예레미야는, 수난을 당해야 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레미야가 꼴도 보기 싫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모진 고문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도 정말 아프고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서는 어리숙한 저를 속이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비웃고
제가 잘못되길 원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할까
고민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가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거라.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모든 경고의 말을 기록하거라.
만약 그 책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예레미야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바룩’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말씀 책을 쓰기 시작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은 그걸 열심히 적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마침내 책을 완성했습니다!

“고생했네 바룩,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여
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갈 수가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대신 성전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책을 읽어 주게나.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도록 말이야!”

성실한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사람들에게 말씀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남유다 왕궁에도 전해져서
왕의 신하들 귀에까지 들어갔죠.

“이럴 수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는 건 시간문제겠소.
이걸 당장 왕께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좋겠소.
이보게 바룩, 자네는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있게.
우리가 폐하께 이 책을 전할 테니.”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어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거라!”**

한 신하가 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한쪽, 두 쪽... 신하가 서너 쪽쯤 읽었을 때
갑자기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을 가져오더니
책을 베배앗아 신하가 읽은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급기야는 두루마리 책
전체를 난롯불에 던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유다의 왕이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걸로도 성이 안 는지, 급기야는 두루마리 책
전체를 난롯불에 던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유다의 왕이 불태워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 후 바빌로니아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김 왕을 굴복시켰죠.
그 뒤로 짧은 시간 동안 두 명의 왕이 더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듣지 않은
남유다 왕국은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시가 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그저 백성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지
이제 알겠죠?

자신이 겪은 고통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던
같은 민족 사람들을 바라보며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던 거예요.